“종교시장화 가속… 붓다 ‘전법교화’ 상기를”

조기룡 교수, ‘불교학연구’ 기고논문서 주장

韓 종교인구 감소 추세로
종교간 포교 경쟁 가속화
‘종교시장화’ 함께 나타나
포교가 ‘賣佛’행위 될 수도

‘중생고 해소’… 기본 중요
탈세속화, 불교포교의 동력
화합승가로 세속과 차별화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교시장화 현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붓다의 전법교화 정신을 상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불교학연구회 발간 학회지 〈불교학연구〉 제58호에 기고한 논문 ‘한국사회의 종교시장화와 한국불교의 포교 정향’에서 한국 종교계의 시장화 현상을 분석하고 불교 포교의 나아갈 길을 고찰했다.

조기룡 교수에 따르면 ‘종교시장’은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 등에 의해 유래된 용어다. 이들은 종교단체들이 사람들의 기호와 양태에 맞춘 포교 프로그램을 개발해 신도 확보에 나서는 종교의 시장적 상황을 “인간의 비용과 편익 계산에 따른 합리적 판단 결과”라고 간주했다.

조기룡 교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종교시장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표적 원인으로는 종교인구 감소를 들었다. 실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종교인구는 10년 전보다 9% 정도 감소했고, 종교가 없는 인구 비율이 56.1%로 종교가 있는 인구 비율보다 높아졌다.

그는 “종교인구 감소는 종교단체에 위기의식을 가져다주고, 이는 종교간 치열한 포교경쟁으로 이어진다”면서 “각 종교단체는 신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여러 포교방안을 강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종교시장화는 가속화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불교, 가톨릭, 개신교로 3분된 한국 종교 구조에서 이들 종교들의 과점적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며 “종교선택의 택일적 특성상 과점에 의한 공존보다는 세 종교간 경쟁, 특히 불교와 개신교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조기룡 교수가 종교시장화를 경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종교의 포교가 ‘영적 마케팅’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해서다.

이에 대해 그는 “포교가 영적 마케팅이 되면 사찰은 붓다의 가르침을 상품으로 여기게 된다. 아무리 고귀한 진리인 붓다의 가르침일지라도 상품이 되는 순간 고객에게 팔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포교가 붓다의 교법을 상품으로 파는 ‘매불(賣佛)’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시장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이를 극복하기 위한 포교 정향으로 ‘붓다의 전법교화’를 조기룡 교수는 제시했다. 기본을 상기하라는 것이다.

생로병사의 고통에 빠진 중생들에게 붓다는 자신의 법을 전하며 스스로 고통서 벗어나도록 유도했고, 이것이 붓다가 보여준 포교의 목적이었다.

조기룡 교수는 “한국불교의 포교 정향은 붓다의 전법 교화에서 강구해야 한다”면서 “중생고의 해소, 즉 인간의 행복이 종교를 초월한 포교의 주요 목적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교 주체인 승가의 탈세속화와 화합도 주문했다. 조기룡 교수는 “한국불교의 탈세속화는 불교 포교의 핵심동력”이라며 “승려의 가치관은 물질 중심의 세속적 가치관과는 달리 정신에 중심을 두고 그것으로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보여준 승가의 불화는 불교교단을 사회의 문젯거리로 전락시켰고, 불교를 멀리하게 만들었다”면서 “이는 한국불교가 화합승가를 구현해 사회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상기시킨다”고 강조했다.

동북아 재가운동 전반적 특징은

불교문예硏 26일 세미나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불교의 재가운동의 특징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 불교문예연구소(소장 차차석)는 4월 26일 오후 1시 동방문화대학원대학 호운미술관에서 ‘동북아 불교계의 재가불교운동과 그 특징’을 주제로 제13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총 2부로 진행되는 학술세미나에서는 동북아불교계의 재가운동의 특징에 대한 조명과 근현대시기 서양종교에서의 평신도운동을 고찰하는 논문들이 발표된다.

학술세미나에서는 김경진 진각대학원 교수가 ‘한국 근현대 재가불교운동의 특징과 전망’을, 김영진 동국대 교수가 ‘중국 근대 재가불교의 주요 흐름과 그 역할’을, 이석환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가 ‘일본 근현대 재가불교운동의 특징과 전망’을, 윤용복 종교사회문화연구소장이 ‘근현대 서양종교에서 평신도운동의 특징과 전망- 한국 기독교를 중심으로’가 각각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최원섭 위덕대 교수, 한지연 금강대 교수, 김재권 능인대학원대학 교수, 이진구 박사(한국종교문화연구원)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스위스 박물관 ‘조선 불화’ 제모습 찾다

국박 ‘추파당대사 진영’ 보존처리 완료… 15일 인계식

스위스 리트베르크박물관
소장된 유일한 한국 불화
그간 훼손 심해 전시 불가
해외 한국실 지원사업으로
2년 동안 보존처리 작업

‘추파’라는 법호만 확인돼
정확한 인물 추정 어려워

스위스 박물관의 유일한 한국 불화가 제모습을 찾게 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4월 15일 기획전시실에서 보존처리를 완료한 스위스 리트베르크박물관 소장 조선 후기 불화 ‘추파당대사 진영’을 해당박물관에 인계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진행하고 있는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보존처리 작업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2년에 걸쳐 이뤄졌다.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리트베르크박물관은 1952년 개관했다. ‘추파당대사 진영’은 리트베르크박물관이 보유한 유일한 한국 불화로, 1956년부터 소장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파당대사 진영’은 편화 형태로 보관됐고, 훼손도도 심해 제대로 전시된 바는 없었다. 이에 리트베르크 박물관은 상설전시실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활용을 위해 한국 전통 불화의 장황 형식으로 보존처리를 해줄 것을 국립중앙박물관에 요청했다.



스위스 리트베르크박물관 소장 조선 후기 불화 ‘추파당대사 진영’의 보존처리 후의 모습. 국립중앙박물관의 외국박물관 해외실 지원사업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2년 동안 진행됐다.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는 보존처리를 위해 X선, 적외선 분석 등 사전조사를 실시해 회화의 손상 정도와 과거 보존처리 흔적 등을 확인했다. 보존처리 전 화면의 앞면에는 물에 노출돼 생긴 얼룩이 화면 전체에 번져 있었으며, 표면에 흰 곰팡이가 생성됐을 정도로 손상의 정도가 심각한 상태였다.

보존처리 과정에서 화면의 곰팡이와 얼룩을 제거하면서 화면의 결손된 부분은 유사한 조직의 비단을 사용해 보강했다. 화면 뒷면에 부착된 굳은 접착제와 종이의 흔적도 제거했다. 불화의 형태는 기존의 편화에서 족자 장황으로 바뀌었으며, 족자의 회장 부분은 안료를 채색해 전통적인 불화 형식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추파당대사 진영’은 조선 후기인 19세기에 조성된 작품이다. 사찰의 진영은 주로 입적한 스님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그렸으며 ‘영탱(影幀)’이라고도 한다. ‘추파당대사 진영’은 ‘추파’란 법호를 가진 스님의 진영이지만 구체적 문헌 기록이 없어 정확한 인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향후 보존처리 외에도 전시실 환경개선, 도록 출판, 교육프로그램, 한국문화재 온라인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외국 한국실 지원사업을 펼칠 것”이라며 “외국 소재 우리 문화재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존처리를 마친 ‘추파당대사 진영’은 4월 16일 스위스로 이운되며, 소장처인 리트베르크박물관은 진영을 상설전시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제2회 성운학술상 대상에 조준호 연구원

한국불교학회 발표… 오는 5월 24일 시상식

우수상–현암 스님, 장려상–송재근 · 배금란

한국불교의 염불신앙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위해 제정된 성운학술상 제2회 대상에 본지 필진인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원〈사진〉이 선정됐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는 “최근 학술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에 조준호 연구원의 ‘아미타불 신앙의 기원과 전개에 대한 규명’을 제2회 성운학술상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

또한 우수상에는 현암 스님(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박사 과정)의 ‘상좌부 불교의 염불수행 연구’를, 장려상에는 송재근(창원대 철학과) 박사의 ‘염불신행의 철학적 해명’과 배금란(서울대 종교학과 박사과정)씨의 ‘염불의 공효(功效)와 실천적 의미 연구-운제산 자장암 사리분신 영응 사례를 중심으로’를 각각 선정됐다.

대상 논문인 조준호 연구원의 ‘아미타불 신앙의 기원과 전개에 대한 규명’은 무량광불 · 무량수불 · 극락정토 등 아미타신앙의 핵심개념이 초기불교로부터 연원한 것임을 문헌적 전거를 통해 규명했다. 아미타신앙의 기원이 관 페르시아 등 외부세계의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주류적 논의와는 달리 초기불교로부터 발전해왔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현암 스님의 ‘상좌부 불교의 염불수행 연구’는 빠알리불전에 나타난 염불수행으로서의 불수념 수행과 가피사례에 대한 검토했다. 이 논문은 빠알리불전 상의 염불수행이 보이고 있는 특징과 가피사례까지 망라해 상좌부불교의 염불수행 양상을 명료하게 드러냈다.

장려상 수상작인 송재근 박사의 ‘염불신행의 철학적 해명’은 염불신행의 철학 · 신행적 구조를 잘 풀어낸 점을 인정받았으며, 배금란 씨의 ‘염불의 공효(功效)와 실천적 의미 연구-운제산 자장암 사리분신 영응 사례를 중심으로’는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사리분신의 영응과 가피 사례를 종교학적 측면에서 풀어낸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한편, 제2회 성운학술상 시상식은 오는 5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사바정토 - 불교적 이상사회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리는 한국불교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500만원, 우수상은 200만원, 장려상은 1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신성민 기자

보조사상연구원 131차 월례학술회

5월 10일 종로 법련사서

보조사상연구원(원장 김호성)은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법련사 2층 교육관에서 제131차 정기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법진 스님(태국학연구소)의 ‘동남아시아에서의 초기 불족적의 변형’과 김종수(충남대)의 ‘깨달음으로서의 무아에 대한 고찰’이 각각 발표된다.

법진 스님은 동남아시아 불족적 내 상징이 108개로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고 이를 당시 왕들이 힌두 상징들을 대거 수용해 왕권강화에 이용한 사례라고 설명한다.

김종수는 깨달음의 시종으로서의 무아에 관해 고찰한다.

논평자로는 김경래(동국대), 김한상(한국외대)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